

	기획재정부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9. 6.(월) 조간	배포일시	2021. 9. 3.(금) 15:30
담당과장	재정관리국 핵심사업평가팀장 최우석(044-215-8781)	담당자	조현두 사무관 pumpguy9@korea.kr 정철교 사무관 kyo80@korea.kr

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, C-ITS 실증 시범사업 추진 등 핵심사업평가 결과 「2022년도 예산안」 반영

- 정부는 지난 6.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「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」에서 발표한 핵심사업평가* 결과(재정지원 개선방안)를 「2022년도 예산안」에 반영

*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, 시행령 제3조 및 「재정사업심층평가 운용지침」에 근거하며,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여 **재정투입방향** 등 제시

< 금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8개 과제 >

-
-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| ②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| ③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|
| ④고졸취업 활성화 | ⑤산업단지 환경조성 | ⑥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|
| ⑦규제자유특구 지원 | ⑧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| |
-

* 금년 4월부터 최근 신규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 평가 과제로 선정하고, 과제별로 기획재정부·민간전문가·조세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재정투입·집행실적·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함

□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

[1] [법정부 클라우드 전환]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

- 정부·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2,149개 정보 시스템(서버, SW 등)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(2,402억 원)
 -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, 클라우드 설치비, 상용SW라이선스, 컨설팅 비용 등 지원
- 아울러,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(SaaS)^{*}를 민간에서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^{**} 신규반영(80억 원, 국고보조율 80%)

* SaaS(Software-as-a-Service)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, 각 기관별로 응용SW를 자체 개발·구축하지 않아도 됨

** 클라우드 보안인증, 서비스품질, 전자정부플랫폼과 호환 등 기준 충족 지원

[2] [첨단도로교통체계] C-ITS^{*}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 결정을 위해 필요한 LTE-V2X 실증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(126억 원)

* C-ITS(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: 자동차-교통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시스템

- 실증사업 완료 후 시범사업(WAVE와 LTE-V2X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)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C-ITS 전국 구축^{*}사업 착수 계획

* ('21~'22) LTE-V2X 실증사업 → ('21~'22) WAVE와 LTE-V2X방식 시범사업 → ('24~)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표준 동향 고려, 단일표준 결정 및 전국확산

< C-ITS 구축 계획 >

① (실증추진) LTE-V2X방식 단기간내 실증완료

'21.下 ~ '22년

- LTE-V2X 실증완료시까지 사업지연 최소화를 위해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WAVE방식 우선구축

'21.하반기부터

② (병행구축) 실증 후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고속도로 일부구간에 WAVE와 LTE-V2X방식 병행구축

'22~'23년까지

③ (전국확산) 시범사업 결과 및 국제표준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일표준으로 전국으로 확산 구축

'24년 이후

[3] [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] ① 패키지사업*을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, 기업·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%내로 한정하고

- * 고용위기 우려지역에서 광역-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자리사업 추진(최대 5년간 국고 지원)
- ② 간접적 고용사업은 고용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*에 한해 인정
 - * 예) 신규채용 또는 고용유지를 약정한 기업에 한해 경영활동(시제품제작·판로개척 등) 지원
 - ③ 고용위기를 선제 판단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우려지역 선정기준에 경기선행/동행지표(제조업가동률 등) 반영('21.下 지침개정, 고용부)

[4] [고졸취업 활성화]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고졸취업 장려금(5백만원)* 지급방식을 '취업시 일시지급'에서 '분할지급'**으로 전환(취업현장 안내 등을 거쳐 '23년부터 적용)

- *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시 장려금(500만원)을 지급
- ** 예) 채용시 200만원(40%), 6개월 후 150만원(30%), 1년 후 150만원(30%)
- 아울러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
 - * 취약계층 청년(14만명)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(年 최대 960만원)으로 고졸취업자(2만명)도 포함

[5] [산업단지 환경조성] ① 현재 복잡·다기한 산단 환경개선 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집약화(18개→13개)하여 집중 투자하고

- 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산단 공모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한 통합계약방식 도입('22년, 산업부)
- ③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중 민간의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검토

* 예) ① 산단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·저장시설(태양광발전, 연료전지, 에너지 저장장치 등), ② 스마트공동물류센터, ③ 완충저류시설 등

⑥ [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]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'22년 5천개 추가 보급(3,543억원)하여 '22년까지 3만개 지원목표 달성

- 이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본격적 투자소요는 저리 정책금융 방식으로 지원('22년 6,000억원)

⑦ [규제자유특구 지원] 금년 재정지원(2년 한시)이 종료되는 14개 특구에 대한 추가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(최대 7개)하여 신기술·신서비스 사업화자금 지원(32억원)

⇒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2단계 재정지원으로 사업성과 극대화

* 중기부는 「성과우수 특구 재정지원 가이드라인」 마련('21下.)하고, 내년 3월 성과 우수 특구 선별 및 지원 계획

⑧ [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] ①코로나19 위기상황 완화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규출자는 중단하고, 추가소요 발생시 기존 미집행 출자금 활용

- ②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^{*}하되, ③방역 규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긴급융자자금^{**} 지원

* 소상공인지원(융자, 억원): ('20) 45,500 ('21) 41,000 ('22예산안) 36,000

긴급경영안정자금(융자, 억원): ('20) 13,000 ('21) 8,000 ('22예산안) 2,000

신보·기보기금출연(억원): ('20) 38,149 ('21) 7,906 ('22예산안) 4,020

** 소상공인 희망대출(신규) 0.7조원(저신용 금지제한업종 7만명 대상 1.9%, 1천만원) 등 지원

□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금년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되었던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,

-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·조정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

- 향후에도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